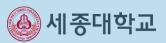
# 한국현대사의

Introduction to the Contemporary History of Korea

7주차. 박정희(2) 3강. 몰락





- 1. 박정희 유신체제의 몰락을 어떻게 설명해야 하는지?
- 2. 유신체제 해체에 관한 이론적 논의는?



- 1. 박정희 정권의 해체에 대한 균형 잡힌 평가에 대해 학습한다.
- 2. 유신체제 몰락에 대한 기존의 역사적 평가에 기반을 두어 그것을 개별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.

제3강 몰락





# 생각해 볼 문제



- 독재정권 몰락의 전제는?
- 나는 지금까지 박정희의 유신체제를 어떻게 평가하였는지?

#### 0] 들어가기 전에

- ☑ 유신헌법으로 종신집권을 보장받은 유신 군주 박정희는;
  - ➡ 1979년 10월 26일 친구인 김재규 중앙정보부장에 의해 암살
  - ➡ 박정희 유신체제의 종말
- ☑ 이런 몰락에 구조적·행위자적 요인이 동시에 작동



- ◆ 경제적 위기
  - ✓ 개발 독재에 의한 중화학 중심의 산업화 모델은 1977년부터 시작된 제2차 오일쇼크로 중대한 위기 직면
  - ☑ 중화학공업화는;
    - ➡ 물량 투입(input) 중심으로 이루어진 고비용·저효율 구조
    - ➡ 중화학공업 상품의 수요가 내수가 아닌, 세계시장 중심의 취약성
  - ☑ 약탈 국가적 (predatory state) 성격
    - ➡ 60년대의 노동집약적 경공업 중심 수출주도 산업화
    - ➡ 70년대의 노동집약적·자본집약적 중공업 중심 수출 주도 산업화



- ◆ 경제적 위기
  - ☑ 중화학공업의 위기 직면;
    - ➡ 해외수요 격감
    - ➡ 개벌이 감당해야할 비용과 손실을 중산층과 노동자, 서민에게 전가
    - ➡ 이른바 비용과 위험부담의 사회화 시도
    - ➡ 이 사회화의 대표적 본보기가 1972년 8·3 긴급경제조치
    - ➡ 사채업자들이 재벌 살리기의 주요 희생양
    - ➡ 반면, 일반 서민 대중으로부터는 저항을 받지 않았음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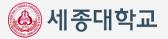


- ◆ 경제적 위기
  - ☑ 제2차 오일쇼크로 인한 비용 분담
    - ➡ 중산층과 서민대중에게 전가
    - ➡ 박정희의 중화학공업화는 중산층, 노동자, 서민의 비난과 저항의 대상
    - ➡ 박정희의 지지 기반은 안으로부터 붕괴되기 시작



◆ 정치적 위기

- ☑ 1978년 경제적 위기의 심화가 정치적 위기로 확대
- ☑ 모든 경제적 위기가 정치적 위기로 확대되지 않음
- ☑ 이런 확대는 선거정치라는 뇌관 필요



- ◆ 정치적 위기
  - ☑ 경제위기에 대처하는 박정희의 정책과 인권정책에 대한 민중의 불만은;
    - ➡ 대도시(산업화된 중소도시를 포함하여)에서 야당(신민당) 바람
    - → 신민당은 집권여당을 총 득표수에서 승리
  - ☑ 사실상의 총선승리;
    - → 신민당 내의 선명파(김영삼 주도)가 유화파(중도통합파, 이철승 주도)에 대한 헤게모니 장악
    - ➡ 박정희의 독재에 정면 도전



◆ 정치적 위기

- ☑ 이런 정치권 내의 역학관계의 변화는
  - ➡ 노동자들의 권리 주장(YH 사건)
  - ➡ 부산과 마산의 대규모 시위(부마민주항쟁)





◆ 국제적 요인

- ✓ 제2차 오일쇼크라는 국제 경제적 요인이 박정희 발전 모델의 토대 와해
- ☑ 이는 상부구조인 정치적 정통성 위기로 확대
- ☑ 박정희 몰락의 또 다른 구조적 요인



◆ 국제적 요인

- ☑ 더 중요한 것은 냉전의 후견 국가인 미국과의 관계가 악화
- ☑ 박정희는 미국과의 관계가 원만하지 않았음;
  - ➡ 해방 후 남로당에 가입하면서 여순사건에 연루
  - ➡ 미국은 그 때부터 박정희의 사상 의심
  - ➡ 이런 의심과 불신은 5·16 쿠데타 승인 과정, 민정이양, 유신정권 수립 이후 카터 행정부와의 불화 심화



◆ 국제적 요인

- ☑ 불화 심화의 이슈는;
  - ➡ 카터가 인권대통령의 기치를 내걸고 당선
  - ➡ 제3세계의 인권상황 개선 노력
  - ➡ 박정희 정권은 긴급조치를 선포하면서 인권상황 악화시키고 있었음
- ☑ 박정희는 미국과의 관계가 원만하지 않았음;
  - ➡ 주한미군 철수
  - ➡ 반공의 보루로서의 한국의 가치 때문에 철회
  - ➡ 카터와 박정희 간에는 불화와 반목 심화
  - → 이러한 미국과의 반목은 박정희의 대외적 정통성 훼손



- ◆ 국제적 요인
  - ✓ 미국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국제적 조건은 국내정치로 침투하여 국내 행위자의 선택 변화
    - → 국제정치가 국내정치로 환류(feedback)
    - ➡ 국내 정치의 '선택의 구조' (structure of choice)를 바꾸어 놓음.



- ✓ 왜 박정희는 자신의 죽음을 초래할 일련의 사태를 스스로 초래했는가?
- ☑ 김재규는 왜 친한 친구의 심장을 향해 방아쇠를 당겼는가?
- ☑ 박정희의 죽음은 박정희의 선택이라 볼 수 있음;
  - ➡ 위기에 생존을 위한 최적의 선택을 하지 않음
  - ➡ 스스로 자신을 죽음으로 몰아갔기 때문



- ☑ 초기의 박정희는;
  - ➡ 뛰어난 통치술을 가진 마키아벨리적 신군주
  - ➡ 유신독재체제를 평화적으로 수립
  - → 1977년 제2차 오일 쇼크에서 시작되는 유신 말기에 박정희의 역량은 퇴화, 소멸
  - → 그는 초기에 전략적 선택가
  - → 이데올로기적이라기보다는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최적 전략을 구사한 유신 군주



- ☑ 제3공화국 하에서 박정희는;
  - ➡ 교수 등의 지식인 집단의 자문을 구했고
  - ➡ 그들을 직접 기용하여 경제정책을 기획, 집행하게 하였음
  - ⇒ 3공화국은 국가와 시민사회(기업가, 기업 단체, 지식인)간의 심의(deliberation) 활발
  - ➡ 이러한 심의의 과정이 박정희의 성공에 일역 담당



- ☑ 유신 이후의 박정희는;
  - ➡ 승리에 도취하였고, 시민사회와의 심의는 줄어들었고, 형식적으로 되어갔음
  - ➡ 성공한 자수성가처럼 자신의 성공 사례가 계속 되리라 믿었고,
  - ➡ 상황이 변화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성공사례 계속 고집
  - ➡ 실패에서 다시 성공할 수 있는 교훈을 얻어야 한다는 '실패 국가론'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음

- ☑ 신념이 확고한 '이데올로기적'인 강경론자
  - → 대화, 타협, 협상, 관용, 제3의 길을 주장하는 전략적인(strategic) 행위자인 온건론자들의 의견 무시
  - ⇒ 강경론은 위기 시에 박정희의 선택의 폭을 줄이는 비전략적이고, 맹목적(blind)인 무모한 선택
- ☑ 선택보다는 이데올로기적인 행위
  - → 경제위기가 도래하여 서민의 생활이 어려워지고
  - → 서민의 불만이 팽배한 가운데서도 성장 일변도, 재벌 손실의 사회화 정책을 계속 강행



- ◆ 박정희의 선택
  - ☑ 심각한 정치적 위기 대응에 있어 박정희 스스로가 비타협적인 강경론자
    - ➡ 집권층 내에서 대화와 타협을 주장하는 온건론자들의 입지 축소



- ◆ 미국 카터 대통령과의 불화
  - ☑ 박정희의 몰락을 가져온 국제적 요인은 카터 인권대통령과의 불화
    - ➡ 카터 대통령이 방한하여 인권문제 제기, 주한미군 철수 발언
    - ➡ 카터에게 불만 표시
  - ☑ 그전부터 추진해오던 핵무기개발에 박차
    - ➡ 대외적으로 박정희는 전략적이지 않았음
    - 일제 강점기나 해방 후 민족주의적이 아니었던 박정희는 핵무기개발을 통해 민족주의자로 거듭남
    - ➡ 핵무기 개발은 미국과의 불화 심화



- ◆ 미국 카터 대통령과의 불화
  - ☑ 대미 정책에서 반미감정에 움직이는 비전략적인 행위자;
    - ➡ 일본에 대해서는 좋은 인연과 기억, 일본과의 관계는 순탄
    - 미국과는 해방 정국에서부터 악연, 집권 기간 내내 관계가 좋은 편이 아니었음
    - ➡ 미국에 감정적·이데올로기적·비합리적 대응
    - ➡ 이에 미국은 핵개발에 대해 견제와 징벌을 박정희에 부과



◆ 미국 카터 대통령과의 불화

- ☑ 미국과의 관계악화는;
  - → 국내정치로 역류하여 국내정치에서 박정희의 입장을 곤궁하게 만들었음
  - ➡ 대외적으로 박정희의 위치와 위상 약화
  - → 이에 국내정치 행위자들이 움직이기 시작



◆ 국내 정치 행위자

- ✓ 야당, 권력 핵심부 내부에서 박정희가 난공불락의 무적함대가 아닐 수도 있다는 인식을 하는 자도 나타났음
- ☑ 권력 계승의 정치에서 중요한 것은 박정희의 총애와 지원이 아니라, 미국의 신호
- ✓ 미국이 박정희를 교체할 수도 있다는 신호를 보내기만 하면 박정희를 제거하는 거사를 벌일 수 있다고 생각하는 측근들이 생김
- ☑ 김재규는 중앙정보부장으로서 미국의 신호에 관해 정확한 정보를 갖고 있었음



◆ 국내 정치 행위자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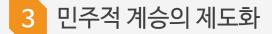
- ☑ 박정희와 유신체제의 몰락은;
  - ➡ 민중봉기에 의한 아래로부터의 민주화에 의한 것이 아님
  - ➡ 집권층 내부의 쿠데타 음모 집단(coup mongers)에 의한 위로부터의 궁정쿠데타도 아님
- ☑ 유신체제 붕괴는 한국형 관료적 권위주의의 제도화 실패
  - → 유신체제는 박정희 1인에 의존하는 인치적인 권위주의주의 체제
  - ➡ 따라서 박정희의 역량이 빛날 때에는 유신체제의 작동에 문제가 없었음
  - → 그 역량이 사라지면 권력 공백
  - ➡ 권력 추구자들은 그 공백을 메꾸기 위해 해결책을 모색함



- ◆ 국내 정치 행위자
  - 1 카리스마의 일상화(routinization of charisma) 추구
    - → 중국공산당처럼 계승의 제도화(institutionalization of succession) 를 통해 후계자에게 점진적으로 권력을 이양하는 것
  - 2 북한의 김일성, 김정일처럼 가산주의적인 (patrimoniali sm)계승 방법을 채택하여 자식에게 권력을 세습해 주는 길
    - → 아들 박지만은 연령 문제
    - ➡ 박근혜는 육영수 여사 사후 퍼스트레이디의 역할 담당
    - → 1970년대 말이라는 시대적 상황에서 여성 대통령의 가능성 희박



◆ 국내 정치 행위자



→ 민주화의 요구를 받아들여 선거 경쟁의 복원





◆ 국내 정치 행위자

- ☑ 박정희는 끊임없이 권력을 추구하는, 권력 욕심이 강한 홉스형 인간
  - ➡ T. Hobbes는, 자연 상태의 인간은 죽음에 도달 해서야 끝나는 권력 욕망을 가지고 있다고 했음
  - ➡ 박정희는 자연 상태의 인간을 벗어나지 못했음
- ☑ 결국 박정희의 몰락과 유신체제의 붕괴는 박정희 자신의 선택의 결과



# 학습정리

- 박정희 유신체제의 붕괴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구조적·행위자적 요인을 동시에 고려해야 한다.
- ── 박정희의 몰락은 구조적 차원에서는 경제·정치위기, 국제적 요인이 작용한 결과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.
- 행위자적 차원에서는 개인적 선택, 미국과의 불화 등이 작용하였다.

- 임혁백. 2012. "박정희에 대한 정치학적 평가." 「평화연구」, 20(2): 51-84.
- 홍태영. 2018. "국민국가 건설과 민족주의적 통치성: 박정희 시대와 남한에서 국민국가 건설." 「한국정치연구」 27(1): 1-30.